

순국선열 숭고한 정신 기려

무주군, 제72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갖고 호국 의미 되새겨

무주군은 지난 25일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에서 제72주년 6.25전쟁 기념행사를 갖고 호국의 의미를 되새겼다. 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회장 신윤식)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관내 안보단체장, 보훈단체 회원 등 2백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행사는 기념식과 유공자포창, 결의문 낭독, 6.25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와 국민통합을 위해 앞장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뜻을 모았다.

황인홍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나라

를 위해 싸우다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오늘날 후손들이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그분들의 존엄한 희생정신과 뜻을 기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유공자들과 보훈가족에게도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광현 씨(90세, 설천면)와 이문수 씨(84세, 부남면), 김일남 씨(79세, 적상면)가 투철한 국가관으로 군민 안보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이밖에 차동훈 씨(91세, 안성면)와 정석규 씨(91세, 적상면)가 무주군의 회의장상을, 박암 씨(75세, 무주읍)와

이진호 씨(88세, 안성면), 김영봉 씨(88세, 안성면)가 무주경찰서장상을, 그리고 정재봉 씨(90세, 무주읍)와 김광주 씨(88세, 안성면)가 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장상을 받았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이은주 팀장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해 보훈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보훈수당을 인상했다"며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불어 자긍심도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에는 현재 7개 보훈단체에 540여명의 회원들이 등록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동향 머위' 농가 효자 노릇 톡톡

진안 동향면, 큰 일교차·풍부한 일조량으로 좋은 품질 머위 생산

진안군 동향면(면장 안계현)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동향 머위'가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으며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향면은 표고 300~400m의 높은 고도에 풍부한 일조량, 큰 일교차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으로 머위재배에 특화돼 있다. 이로 인해 좋은 품질의 머위가 생산되고 있는 것.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면역력과 관련된 식품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동향머위는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어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동향면은 머위작목반과 경영회 등 농업단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머위 생산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친환경 머위의 연중생산을 목표로 20여농가에서 고품질 머위생산

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으며, 이는 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재배농가 및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향머위는 추운 겨울부터 노지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를 실시해 4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가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

머위는 4kg 단위로 포장해 1만6,000원 정도에 출하중이며 타 지역에 비해 좋은 신선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여러 가공식품으로도 개발·유통되고 있다.

안계현 면장은 "머위는 비타민A를 비롯해 다량의 비타민이 고르게 함유되고, 칼슘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머위 농가들이 합심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친환경 머위를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전북도, 쏘가리 치어 1만여 마리 방류

진안군은 지난 24일 전북도와 공조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섬진강 권역에 쏘가리 치어 1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쏘가리는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자체 사육관리 중인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해 체장 3cm이상의 건강한 종자이며, 3년 후에는 20cm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육식성 함도 어종인 쏘가리는 육질이 단단해 회감과 매운탕용으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고급 어종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배스나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포식해 생태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쏘가리 방류를 비롯해 다슬기, 장어 등 우리군의 생태와 맞는 어종에 대한 방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능곡천,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전 '우수상'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친화적인 능곡소하천' 주제 수상

장수군 산서면에 소재한 능곡소하천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전국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치수기능 확보와 하천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자연친화적인 정비 사업 확산을 위해 2010년부터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열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 장수군은 '사람과 자

연이 공생하는 자연친화적인 능곡소하천'을 주제로 참가했다.

능곡천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8억원을 투자해 1.3km구간에 단계별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또 하류부 취락지와 중류부 농경지의 획기적인 정비를 통해 소하천 재해안정성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재해예방시설 구축과 함께 생태 저류지 조성, 하천변 물놀이장과 산책로 조성, 빨래터 복원 등 다양한 친수공간 조성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박문철 안전재난과장은 "소하천정비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조성을 물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로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서도 큰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하천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산서면 소재 능곡소하천 모습.

진안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순회 지도 점검

진안군은 오는 7월 8일까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순회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각종 알레르기 질환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 관리 사업이다.

매년 초 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는 이 제도는 관내 44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습기관 중 33개소에서 운영할 정도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순회지도 점검은 보건소 사업 담당자가 지정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아토피피부염 학생과 1:1로 개별 상담을 실시하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환경인지 유해한 환경은 없는 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 상담에서는 아토피피부염 환아 피부상태 확인, 보습제 바르는 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보습제도 지원한다. 또한 중증 아토피피부염 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학교들을 환경 점검하고, 천식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는 보건실에 천식 응급 키트 가방 비치 여부 확인 후 필요 시 응급키트도 지급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사업 순회교육 실시

무주군과 무주농협·무주반딧불공동사업법인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사업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법정리 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순회수거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위한 취지에서다.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사업이란, 고령·영세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마을별 위치한 순회수거 대상지에서 수거해 도매시장에 출하 대행해 주는 사업으로써,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



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순회수거 대상 마을은 67개 마을에 이른다. 대상 농업인은 65세 이상 고령·영세농 및 자가 운송 능력이 없는 농업인들이 이번 순회교육에 참

여해 요령 등을 터득했다는 평가다.

22일 안성·적상·부남을 시작으로, 23일 무주·적상권역에서 순회교육을 마쳤다.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 사업에 대한 농가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농산물 순회수거 판매사업에 대한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교육 주요내용은 사업참여 방법, 순회수거 및 판매계획, 정산 방법 및 출하통지서 작성요령 등을 군민들에게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8대 장수군의의회 폐원식 개최

장수군의의회(의장 김용문)는 지난 23일 장수군의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대 장수군의의회 폐원식을 갖고 지난 4년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폐원식에는 김용문 의장 등 제8대 장수군의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포상제, 의원 재직기념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제8대 장수군의의회는 지역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 위주의 활동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군민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과 5분발안,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례회 8회, 임시회 38회 운영을 통해 조례·규칙안 352건, 동의·승인안 92건, 결의안 6건, 예산결산안 50건 등을 처리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마무리했다.

김용문 의장은 "보람과 아쉬움 속에 4년간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들과 장수군의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해 주신 군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장수군의의회에서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